

전쟁 그리고 전쟁범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민간인 피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발발 1년,

러시아는 "제네바 협약"을 위반하는 성폭행, 학살 등 전쟁범죄, 비인륜적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다.



포로들을 향한 고문과 학대

우크라이나 포로들에게 러시아 군인들은 심문, 혹은 재미로 온갖 고문과 구타를 행하였으며, 즉결처형이라며 민간인 남성들을 학살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전직 육군 장교의 고백 ...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고문했다'



전직 러시아 육군 장교,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 사죄합니다"

전직 러시아 군 장교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대상으로 잔혹한 심문과 강간위협 및 총살을 자행했다고 고백했다.

러시아군의 만행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인물 중 가장 고위급인 콘스탄틴 예프레모프는 BBC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처럼 밝히며, 이제 러시아에서 자신은 반역자이자 배반자로 몰렸다고 말했다.

예프레모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의 어느 지역에선 "약 일주일간 심문과 고문이 이어졌다"고 한다.

"매일, 매일 밤, 때로는 하루에 2번씩도 자행됐습니다."

또한 보그너 팀장은 우크라이나 출신 전쟁포로들은 보통 심문 중에 최악의 고문이나 학대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를 사용하거나 매달아 놓고 구타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한 고문이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수용소에 도착하는 직후부터 소위 '환영식'이라며 구타당하며, 음식이나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설명이다.

민간인을 향한 전쟁범죄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 군대가 퇴각하면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집단학살과 약탈 등을 했으며, 우크라이나의 학교에 침입하여, 학교로 피난한 아동, 여성들을 성노예로 쓰거나 강간하는 등 성폭행이 일어났다.

어린이도 예외 없이.. '전쟁 비극'된 성폭행

입력 2022-04-14 06:17 | 수정 2022-04-14 06: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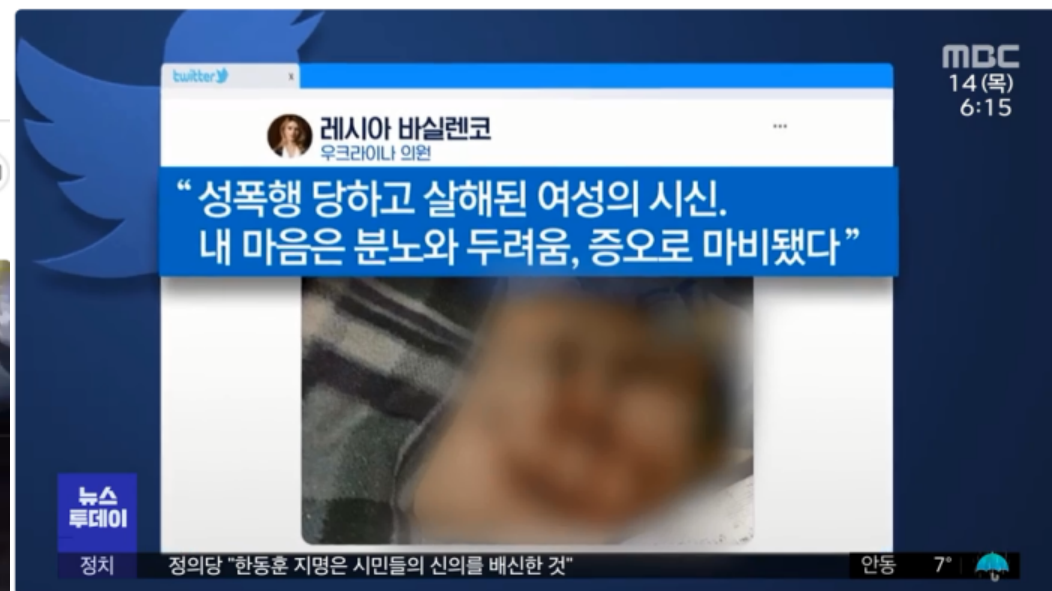


올하 콘드라텐코 / 하르키우 피난민

여기는 지금 끔찍한 상황이에요. 성폭행당한 여자들이 병원으로 오고 그랬어요. 정말 끔찍하죠.

민주당 "한동훈 지명은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검찰 사유화 선언"

남해 10°



"어머니와 17살 딸을 러시아 군인 3명이 동시에 성폭행했다." -인권단체 라 스트라다

"러시아군에 12시간 성폭행을 당했다" -데일리매일

"지하실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당했고, 9명은 임신했다" -우크라이나의 인권감독관

"16살 여동생이 길거리에서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 -bbc

민간인을 향한 전쟁범죄

전쟁 발발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해 더욱 강조된다. 이는 여성과 아동은 전쟁이 발발하게되면 굶주림, 부상에 더해 성적 착취라는 이중, 삼중의 폭력적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시작된 이 전쟁은
1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있다.

